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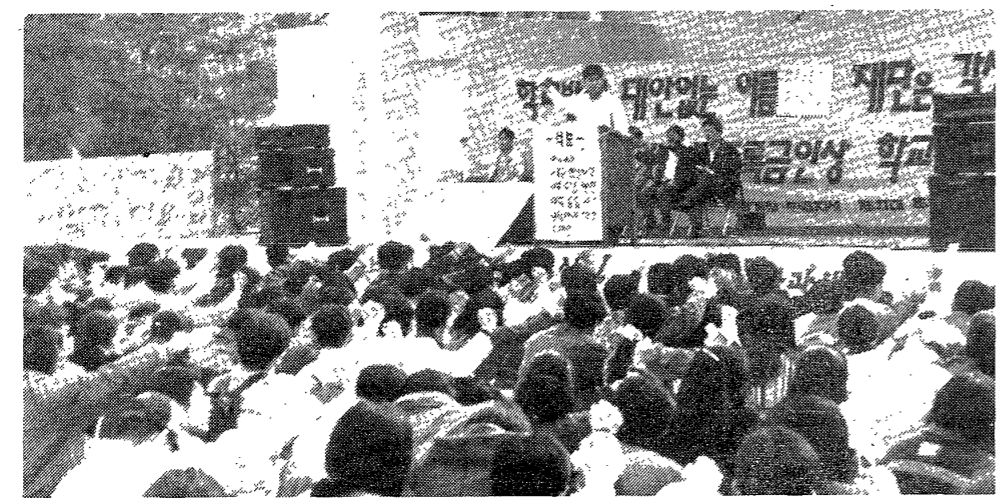
**김추일** 탐욕을 싫어함이 없으면 사람의 생각을 녹여 버리고 사악한 방법으로 이론 재물은 스스로를 침범하고 속인다.  
(법규경·화향동 216절)

#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권동3가 28(전화: 707-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전화: 70-2057)

## “등록금 협상 재개하자”

의견개선운동통해 학교발전 대안·열의 공유



◇지난 14일에 열린 '방중 등록금 협상 보고 및 등록금 투쟁 승리를 위한 1만 동학 다짐 대회'에서 제27대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의 태도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등록금 재협상을 결의했다.

방중 등록금 협상 보고 및 등록금 투쟁 승리를 위한 1만 동학 다짐 대회가 서울캠퍼스 제27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 주최로 지난 14일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 회원자

## 학생처, '성숙한 학생활동' 대자보 학생측, 강경한 입장 표시

등록금 협상등 해결할 문제가 많은 학교의 총학생회는 지난 9일 학생처의 입장을 밝힌 학생처장 명의의 '성숙한 학생활동을 기대하라'란 대자보를 사본데, 공대등 학내 곳곳에 게시해 이후 양측 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자보는 입학사정, 총장선출 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 등록금 협의 과정, 총동창회비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총학생회측의 태도와 '자주학원의 길'의 논조에 관한 학생들의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일 생활관장에서 있었던 입학사정에서 총학생회장 안진우(국교4)의 "민족의 재건을 위해 민족간부를 키우던 유일한 민족대학인 본교가 몇년간의 인פק과 파벌로 인한 이기주의로 퇴색되어 산류대로 가고있다"는 발언에서 기인한다.

입학사정에서의 일에 관해 학생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며 학생대표로서 '3류 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지난 9일 있는 비상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14일에 치러진 집회에서 학생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

등을 밝히며 이후 등록금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학교당국의 태도 변화와 학생처장 명의의 유인물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1만 동학의 총의를 모아 내는 의견개선운동으로 등록금 투쟁 승리 △과단위 발전안에서부터 등록금개혁까지 범중국 구교운동 승리를 결의하고 △학교발전 의지 없는 재단의 각종 △비교육적 행각을 일삼는 안재민 이사의 퇴진 △선배들의 투쟁을 무시한 학교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집회 이후 학생들은 실천행사로 분관 항의 방문을 했으며 이사가

방회가 열리고 있는 정각원에서 재단이 학교발전예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학생들이 오복원이사장의 법회중에 정각원으로 들러온 것에 대해 처장 및 학교 직원들은 "인성향 법당에 무더기로 불려와서 구호를 외쳐도 되느냐"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의견개선운동을 통해 학교발전의 대안과 열의를 모아내고 오는 23일 범중국 구교운동선포식을 통해 학교발전의 열의를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모 이사, 영석고 파행 운영 총학, 재단이사퇴진투쟁 전개결의

제27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는 지난 13일 열린 총운위에서 그동안 영석고 교장으로서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해온 안재민이사에 대해 재단이사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운위자리에서 동문인 김홍길(한문 87졸) 교사와 영석고 교사4명이 참석해 그동안 영석고 교장인 안재민이사에 대한 비리사실과 함께 동료교사의 서명서를 전달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4일 '1만동학 다짐대회' 집회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재단이사로서 모실 수 없다"고 밝혔다.

본교 재단이사이자 여학사회 회장인 안재민이사가 교장으로 재직 중인 영석고는 현직교사 33명 28명 교사의 서명으로 교육부, 청와대민원실, 도교육청에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이며 경기도 교육청의 특별감사 중이다.

영석고 교사들의 진상조사요구서에 의하면 그동안 안재민 교장은 △교무처 교무과=주성재 △학생처 학생과=정경섭 △학생회 학생과=주현석 △학생처 취업과=김정옥 △관리처 관제과=송민수 △총무처 총무과=김대욱 (직원노동조합 파견) (이상 3월 9일자) (경주캠퍼스)

△부속실 비서계장=박해구 △교무처 학술계장=관대호 △교무처 학적계장=정민호 △학생처 학생계장=임성복 △학생처 장학계장=성일수 △사무처 총무계장=김영수 △사무처 구매계장=김영부 △사무처 경리계장=김성운 △사무처 관제계장=안석호 △사무처 후생복지계장=이진희 △지역개발대학원 교학계장=석광열 △법정대학 교학계장=이상기 △의과대학

## 보리수

### 우리의 대학 정신

교육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논할 때 으레 문제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교육의 이념과 정신이다. 그것의 부재 혹은 빈곤이, 담취위주의 교육풍조와 단순한 기능적 지식인의 양성과 같은 오늘날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들은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대학의 이념과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민족' '정신' 또는 '진리탐구'와 '문화창달'과 같은 말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념과 정신들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교육의 현실과 유리된 채 전혀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립대의 교육 또는 구체적인 인간교육의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이념과 정신이라면 그것은 한낱 허상이기 쉽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대학의 이념을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불교정신이란 한마디로,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불국정도의 이상사회를 이루어가는 정신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자아완성과 불국정도의 구현을 그 이념으로 하고 정신으로 삼는 대학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의 구체화는 무엇보다도 성심(誠心·신실(眞實)·자애(慈愛)·도제(德性)라는 네 가지 교훈 속에 잘 응축되어 있다. 우리의 교훈은 일찍이 증앙불교전문학교시절, 교계의 중

자를 모아 불전에 향 사르고 발원하여 엄숙하게 선정된, 우리 대학의 고유한 지도정신이자 모든 동국인이 구체적인 실천목표이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내세워진 이념이나 모호한 목표가 아닌 것이다.

오늘의 대부분 대학교육은 편협한 지식과 도구화된 학문적 전문지식의 수수(授受)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인간 전체를 통괄하는 지식을 갖춘 보편적인 교양인을 길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가치를 구현케하는 전문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그 도구성만이 강조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 또한 대학의 이념 혹은 정신과 무관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학의 이념과 함께 교훈이 제시하고 있는 대학정신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일깨워야 한다. 항상 마음을 가다듬어(성심), 참되고 미묘하게 행동하며(신실), 대중을 자비로 사랑하고(자애), 마침내 온 세상을 구제코자하는(도제) 우리의 대학정신이말로 오늘날의 왜곡된 교육현실에 참신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불교도 있다. 우리의 대학이념 그다 그 정신이 과연 우리 대학내에 생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동국인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李逢春

## 직원인사이드

### 각 계장급 발령 및 직원전입

학교당국은 부속기관 및 처과 장급 인사에 이어 지난 9일자로 계장급 인사와 더불어 직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계장=박정훈 △교무처 학적계장=이우용 △교무처 학술계장=박상관 △학생처 학생계장=장운 △학생처 장학계장=박경선 △학생처 취업계장=김영태 △총무처 인사계장=서리 △관리처 관제계장=문득래 △관리처 후생복지계장=김계현 △관리처 구매계장=손재영 △대학원 교학계장=이성진 △교육대학 교학계장=이근재 △불교대학 교학계장=허광도 △의과대학 교학계장=박성재 △생명자원과 학대학 교학계장=김진영 △공과대학 교학계장=김진광 △사범대학 교학계장=김성근 △중앙도서관 사서계장=최국진 △중앙도서관 열람계장=임병수 △중앙도서관 수서서무계장=김중현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본부 사무장=김은길 △법정대학원 관제계장=박근서

교학계장=김차일 △기획홍보과=김경호 △학생처 학생과=최현익 △사무처 총무과=권순정 △사무처 관제과=이진형 △사무처 관제과=노동영 △금강장서각=한병호 △사무처 총무과=김종규 (경주노동조합 파견)

또한 전산원 직원인 신동준씨가 대학원 교학부에 전입했으며 △전자계산소 전산과장=김상수 △전자계산소 개발계장=안상호 △사무처 시설계장=한태호가 지난 1일자로 발령했다.

**경향행정학과**  
**간부고시 대거 합격**  
지난달 26일 실시된 경찰간부고시에서 본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 본사사령

◇입기완료  
▲편집장=이성중(불교대 불교4)  
▲편집부장 겸 사회부장=이재환(상경대 관광경영4)  
▲문화부장=김태성(인문대 국문4)(이상 3월 14일자)

◇신입부장  
▲편집장=김소영(사범대 영교3)  
▲편집부장=이민영(법정대 야간법3)  
▲취재부장=곽주영(이과대 통계3)  
▲사회부장=양수정(이과대 통계3)  
▲문화부장=이유리(문과대 국문3)(이상 3월 14일자)

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거 합격했다. 합격자중 박준성(영명4)군이 수석, 김은성(영명4)군이 차석을 각각 차지했다. 서울지역 합격자 33명 중 본교학생은 22명이고 그중 재학생은 8명이다.

경찰간부고시 합격자들은 이후 1년간의 경찰간부 교육을 받은후 경위로 발령을 받게된다.

**최종 등록률 87%**  
최종 등록률이 87%로 집계됐다.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과) 경리과(과장=박환오)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연장된 '95학년도 1학기' 등록이 최종 87%로 집계됐으며 이후 등록은 학교내 조흥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취재수첩, 기자 재산목록 1호”

- 제37기 수습기자 모집**
- 1.모집부문 및 인원**  
취재기자 0명 사진기자 0명 민화기자 0명
  - 2.응시자격** 본교 1학년에 재학중인 모든분
  - 3.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2차 개별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4.제출서류** 입사원서(본사 소정양식)1부
  - 5.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5년3월 8일(수)~3월23일 오후5시까지
- 6.원서 교부처**  
서울캠퍼스학생회관 옥내지하 1층, 본사 총무부  
경주캠퍼스학생회관 2층 본사 편집부
- 7.전형일**  
**1차전형**  
서울캠퍼스 95년3월23일 오후6시  
학림관 J201  
경주캠퍼스 95년 3월23일 오후 6시  
원효관 A301
- 2차전형**  
1차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공표
- ※기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장학금 지급

## 사과문

자사의 야모레베베광고가 본의 아니게 표현상의 문제로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교신자및 불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누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행된 문제의 광고는 즉시 교체하였으며, 이란을 빌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주)태평양 사장 한동근

## '95통일 맞이 새내기 농구 큰잔치

새내기들의 주인의식 고양과 건강증진,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제2회 '95 통일맞이 새내기 농구 큰잔치를 개최 하오니 95학번 새내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자격:과, 동아리, 동문회 등의 95년 새내기  
참가신청:3월20일~21일 양일간  
일 정:단과대별 예선 3월22일~29일  
:본 선 3월30일~4월4일  
장 소:만해광장 및 공대운동장

**유의사항**  
1.접수기간 내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기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2.보다 많은 새내기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3점슛(남학우), 자유투(여학우) 각각 5명씩 출전해야 하며 이 접수는 경기 접수에 포함됩니다.  
3.인원이 많은 과는 2팀 출전 가능  
4.시합전 선수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대개척! 민족지성! 통일로가는 애국 공동체  
제27대 총학생회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 ◇학생처장명의 대자보를 보고

### 학생운동 바라보는 관점 유감

#### 성숙한 학생활동 조력자역할 기대

얼마전 학생처장명의 명의로 나온 유인물을 보며, 가슴 한편에 다가오는 안타까움을 글치 못하며 이 글을 쓴다.

그 유인물의 주된 내용을 보면, 과연 학생활동을 바라보는 학생처장명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학생회 활동의 본연의 임무와 책임이 바로 학생들의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한 지지, 조력을 역할에 담담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1만 동국인의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에서는 학생회 활동의 대부분이 학생회 건부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소위운동권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을 협혹하는 사람들의 단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또한 총학생회장이 입학식장에서 이야기한 '3류대학'이라는 이야기는

운동권들의 헤게모니 정탈을 위한 정치술수의 방편이며, 입학식장에서 총학생장이 이야기한 것은 해고행위이며, 자주학원의 길에 나온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이 사실무근이며, 학생회건부에 대한 협박전화 또한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지금까지 학교당국이나 재단은 얼마나 학교발전을 위해 일해왔는가.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했던 것들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나, 성숙한 고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유인물이나 내는 것이 성숙한 학생활동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제 동국은 더이상 정체가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며, 동국을 거쳐간 선배들이 그토록 절절하게 바라왔던 희망이다. 이제기를 목전에 둔 지금, 학생처장명명의 유인물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술 아픈 사건이라 말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김정수 (사법대 지교과)

### “여학생 화장실 거울설치 필수적”

화장실은 그것이 성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였다. 건축학적, 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 8백㎡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선반하나가 있다면 더욱 좋았다. 개인적인 공간을 지나 이제 밖을 보자, 우선 세면대 (손을 씻는곳)가 필요하였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이 거울, 비누대, 수건이었다.

작년에 자연적 (7)인 누군가에 의해서건 거울이 깨졌다. 거울이파손 되었다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해야 화장실에 대한 도리이겠지만, 깨어진 채로 몇주있다가 결국에는 깨어 없던것인양 치우버렸다. 이는 화장실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며,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있다.

도서관4층 여학생화장실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입구부터 남자화장실을 향하다가 옆으로 살짝 빠져야 되니까 썩 기본중은 위치는 아니나, 실상가상으로 화장실구색까지 갖추고 있지 못하니 사용자가 적고, 대부분이 2층까지 내려가는 수고로움을 겪어야만 한다.

화장실의 조건, 구색을 들여다보면, 그것의 의미는 언제나 사용자의 편리함에 있는 것이다. 화장실의 의미는 곧 사용자의 불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작다. 7백X5백㎡의 거울에 불과하다.

백미연 (문과대 건축공학과)

## 나의 새내기시절을 돌아보며

### 하루 25시간으로 살고자 노력

새내기를 처음 만났다. 마냥 1학년으로 머무를 것 같았던 내가 선배라... 실감할 수가 없었다. 나는 새내기를 틈에 끼어서 다시 1학년이 된듯한 설렘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었다.

얼마 전에 나에게 어느 선배가 작년 1년을 어떻게 보냈다고 물어왔다. 아직 뒤돌아 본다면 정말한 것이 없어서 대답할 할 수 없었다. 이제 고향에 생각이 든다. 나의 1년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를 묘연하는 시간은 이른 5시. 방학도 없이 늘 준비하고 나서서 학원가고 그 강의가 끝나면 바로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서 학과일로, 강의 준비 내지는 과제물도 하루를 보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싫어했기 때문에 영어라면 관심 밖이었지만, 이제는 부담없이 듣고 말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외국어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렇게 끔찍하던 영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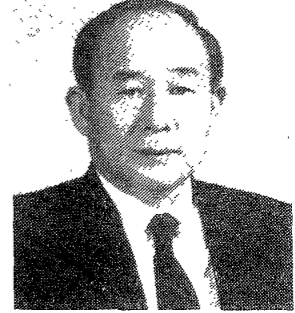
일찍 일어나는 보람을 느꼈다. 지난 여름은 폭염을 느낄 새도 없이 열심히 살았다. 고등학교 때 '대학가면 꼭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것들을 몽땅 몰아서 다했기 때문이다. 하루를 학원들을 돌면서 보냈고, 저녁무렵 겨우 시간이 되어 학생회실을 찾곤 했었지만, 학우들은 이미 집을 향해 가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만난 학우들이 없었는데 이 점이 아쉬웠다.

작년에 나에게 "너 어떻게 살고 있니?"라고 물으면 난 늘 "비쁘게 살다"라고 대답했다. 어쩌면 걸 모 습만 바쁘고 내면으로는 태평했는지 모르지만, 하루를 25시간으로 늘려 살려고 노력했었다.

나에게 새내기에 한 마디 하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며 최대한 바쁘게 사세요" 라고 하고 싶다. 또 노는 것도 호지부지 공부하는 것도 호지부지 하는 식으로 매사에 임하지 말고 확실하게 살라고 하고 싶다.

김영원 (문과대 국문과)

## 동/문/칼/럼 35년 세월을 넘어



내가 대학(화학과 3기)을 졸업한지 어언 35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불교대학원에 1기로 입학하여 이제는 대학원도 졸업을 하였다. 돌이켜 보면 35년이란 세월을 넘어 대학시절이 아득히 기만 하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불교종립학교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전체 학생이 불교화론 등의 건학이념과 관계된 강좌가 필수로 되어 불교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나이 탓이었는지, 그때 불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불교의 높은 가르침은 그대로가 인간의 삶의 문제이며, 그 삶의 지혜는 내 그 가르침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여 지금도 가끔 후회를 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보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다면 오늘의 나의 사회생활이 더욱 원만하고 풍요했을 것이다. 불교는 우리를 삶과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므로 살면서 더욱 절실히 요망된다.

이제 동국대학은 강종의 발전을 해왔으며 명실상부한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명문대학이다. 사람들은 캠퍼스가 좁고 건물이 낮고 시설의 부족함을 들어서 동국대학교를 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를 대학은 반드시 건물이나 시설에 의해서 그 등급이 결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대학은 최근 새로운 동문총장님을 맞이하여, 새로운 포부와 발전의지로 각 분야에 걸친 개혁과 전진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근래에는 아주 우

수한 학생들이 들어 왔으며, 최근 몇년 사이에 동국대학교는 대단히 그 위상이 바뀌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국내외의 우수한 학자들을 공개로 초빙하여 어느 대학에 못지 않은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며, 흥분을 금할 수 없다.

선배의 한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자가 전공하는 전공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불교종립 대학에서 불교를 보다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후배들도 교양으로서 불교를 보다 폭넓고 깊게 공부해 주었으면 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문제이며, 불타의 가르침은 이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악 (주)남양대표이사·화학 60졸)

## 민화...선조의 생활·생각 담겨져

###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이나 그 나름의 이유있어

새해가 시작될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간다.

새해가 되면 오래 신년연하장을 주고 받는 것이 새해인사처럼 된 것은 사실이다.

일전에 이런 연하장을 받았다.

호랑이 한마리, 소나무에 까치한 마리, 새해가 있는 그림의 연하장이었다. 민화에서나 한복은 너무 익숙한 그림이 새해연하장으로 온 것이다.

그것은 무심코 보아 넘겨왔던 그림이었고 단지 조선시대에 통속적으로 민간에 유행했던 그림이라는 것 이외는 전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해보질 못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새해에 보내는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하고 생각을 거듭해 보았지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후 이런 궁금증을 책을 통해 풀게 되었다.

당시 이 그림은 새해를 맞아 정원에 붙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수명은 한달밖에 안되고 2월에는 다른 그림이 그자리에 붙게 되었다 한다. 이렇게 새해연하장도 수요도 많고 자주 그려지다 보니 어느덧 일정한 양식으로 정형화되었다.

그래서 두명화가들이 눈썰미로 그린 대중의 그림, 곧 민화(民畵)가 된 것이다.

정월의 호랑이와 까치의 그림중 호랑이는 사나움으로 액막이를 하

려한 의도이다. 그렇다면 사납지 않은 까치는 왜 그려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까치는 왜 한쌍이 한마리이며 소나무까지 왜 안 그려 넣는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중국의 민간서화를 예로들면, 호랑이 대신 표범이 있다. 표범의 경우 표범의 '표'가 고할 '보(輔)'와 중국에서는 '파오로 발음'이 같고 소나무는 정월, 까치는 '기쁨(禧)'을 뜻하므로 이것을 한 화면에 그린 그림은 소나무=신년, 표범=보(輔), 까치=희(禧)이므로 신년보희 '새해를 맞아 기쁜소식'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범자리에 호랑이가 들어가면 위와 같이 읽을 수 없게 된다. 음력으로 정월이 호랑이달 인월(寅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월을 변질되어 표범무늬가 섞여 부지불식간에 그려졌기 때문에 위와같은 뜻을 목적으로 그리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려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치에 안 맞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선조들의 생활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게 아쉬울 뿐이다.

한경오 (상경대 국제경제학과)

## 항상 고민하는 삶이 되길

### 서로의 이상 나누던 시절 그리워

오늘도 학교는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는데 나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힘이 없구나.

살일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계를 맞은 지금 내겐 홀로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진다. 주위에 나를 이해해주는 이들이 없어서 일거야.

예전에 나와 같이 느끼던 그런 생활들이 그리워지구나.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각자의 이상을 향해 날개짓을 하던 그때.

요즘은 그런 마음의 깊이가 달려져 있는 것 같아.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서로의 이상을 토로해 왔던 옛시절.

그때는 하루가 무척이나 짧게 느껴졌었다. 심지어 연애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조그만 사무실을 열고 기뻐했던 적도 있었고 좌절도 무척이나 많이 했지만 항상 너희들이 곁에서 힘을 주었던 그 시절. 무척이나 그립다.

그리움이 크면 현실적 삶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진다. 또한 과거의 아름다움 추억은 미래를 준비하는

필거름이 되어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현실의 생활에 적응을 못해 옛생활들을 기억나게 한다. 지금의 생활고민들을 함께 할 동거들이 그리워.

지금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이 남은 앞으로의 살아야 할 의로운 일로 보낼 수 있을까 공평해진다. 너도 한 나와 같은 고민들로 많은 시간을 보내라라고 믿는다. 언제 다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 늦게까지 지금의 이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해 보자구나.

오래도 흥청망청으로 거리에 많은 이들이 오가고 있지만 머리속에는 어떤 고민들로 채워져 있을까 궁금하다.

최소한의 지성인이라면 한번쯤 이러한 자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안녕, 앞으로 열마냥지 않은 생활 몇몇개 마무리하기 바란다. 항상 고민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배가.

홍승희 (인문대 국사학과)

##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 지자체 기획, 의의와 중요성 일깨워

지나호 (1168호) 동대신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자체에 대한 기고와 신임총장에 대한 기사, 제반 학교사무에 관한 보도가 그것이다.

우선 지자체에 대한 기사는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민자당의 기초 단체장 선거의 정당 공천 배제 의도를 막기위한 민주당의 의정단공천의 절차와 경합에 의한 강제 해산등의 파행을 보면서 언론은 양비론을 내세우면서 민자당을 옹호하는 인상이 짙다. 이에 '시사단'의 기사는 정당 공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잘 알려준 것 같다. 다만 민자당의 의견이 곁에 있었다면 더 큰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4회연재 기획물은

자칫 현실적인 공방에 매몰돼 있기 쉬운 지자체 본래의 의의와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는 면에서 적절하다.

신임총장에 대해서는 전임총장에 대한 평가와 신임총장에 대한 기대를 담은 교수의 기고와 이에 보충적인 기사가 있다. '총장출마자 공약 분석'이라는 좀더 치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신임총장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각각의 공약에 대해 타후보들의 공약중 보완할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신임총장에겐 학내 구성원에게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김일환 (문과대 국문과 본사 모니터)

# 동/악/광/장

## 목 먹골

■사람스런 동문 후배 증범 (김공 '95)의 수석입학을 축하합니다. -김공 '94동문

■지교 93 예쁜 승희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기들이

■축하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활기차고 뜻있는 대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재동대 대전합우회 일동

■사회학과 개강축하 축하드립니다. -97기일동

■주서비와 은경이의 민중사랑 인회를 축하해요. -97기일동

■3월15일 원철생일 그림 안 되자 생일 축하해요. -일수

■95친구들 아름다운 톨 식구들이 되신걸 정말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 하시구요. 참 톨은 새로운 95친구들을 기다립니다. -톨 92

■악(악)성적 선배의 재대를 축하드립니다. -사무회 일동

■세진, 정호(호), 영진이, 영준이의 Youth-hostel인회를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쁜 15기 일동

■사람스런 동문 후배 증범 (김공 '95)의 수석입학을 축하합니다. -김공 '94동문

■지교 93 예쁜 승희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기들이

■기원야 생일 축하해!! -기원이가

■3월18일 혜진이 언니의 생일을 93후배가 정말 축하해요. -93후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정희야! 행복하길... 그런데 내가 누구일 것 같나? -정치외교학과 도학우

■선배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살짝 배라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친구가 되자 -Best 일동

■늦었지만 8일, 언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런데 내가 누구? -정치외교

■이쁜 승희 언니 복학 축하드려요! 언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Note 좀... Call? -무진장 좋아하는 94가

■95년도에 복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Congratulations~(스펠링 맞나?) 잘 살아보세... -지교 92 正林

## 알립니다

■부천여고, 부천고가 판단 동문회를 다시 한다. 94-95학번은 무조건 가입!! -막가는 선배

■해화관과 교수회를 잇는 다리부근의 홍물스런 폐지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이며 몇개 되지 않는 환정기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을까? -RJS

■극예술 연구회 새내기들의 입장을 기다린다. -92외(?)

■세기말 여러분을 구원할 곳은 어디? 학생회관 1층 여성문제연구회 '셋바람'오라!! -동계 '94김홍욱

■3월20일 공제구에서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마니마니 오세요. -3월20일

■동국인의 자랑거리 비랍소리(Para Gliding Team)입회순간 자연인이 된다!

## 그리고...

■신방-중문-광고학과 열정적인 동기 사랑으로 대학인의 삶과 미리 내글 사람을 가슴에 새기자!! 힘내요. -야 총

■문화재 사랑방 후배들이, 새학기 알차게 보내고 총흥의 문-연을 만들자. -88선배

■성폭력위기관리센터의 '제4기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91년 4월 개소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의료, 심리 상담을 해 온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신속하게 돕기위해 24시간을 영하고 있으며 증거채취와 법적 고소, 가해자 검거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킴이는 제일 처음 내담자의 전화를 받아 병원과 경찰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파사서 3주 9회의 교육을 받습니다. 모집대상: 남녀 전대이상 선착순 20명(연 50명). 선발요령: 1차 서류심사(이력서 1통) 재학(또는 졸업 증명서 1통) 2차 면접 (서류합격자에 한해) 접수기간: 4월10일까지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 상담소 (T.576-7128) 활동기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순산을 기원합니다. -졸준원 총무국장

■생일이 지났지만 현현형의 생일(14일)을 축하합니다. 더 열심히 사세요. -예베키

■새내기 여러분의 첫 미팅을 축하하면서... -현내기가

■수고하셨습니다

■現, 研학우님을 학기초라서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하시다. -국사 썰렁이

## 은방골

■현숙아, 요즘 너도 힘들어 보인다. 우리 열심히 살아가자 내맘알지? -널 생각하는 사람

■오늘따라 호경, 네가 생각난다 할때 내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열심히... -주

■동헌아, 학사일 힘들지 조금만 참고 힘내라. -살살이

■중국 불링94여러분 열심히 하죠. -잘될 위기에 처한 94

■알립니다

■가교과가 연합MT를 불국사로 17일, 18일 간때요. 여자끼리 톨볼공쳐 화이팅! 알죠? -마음은 먼저 가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희 대 경원-승현 동문 선배들이 새내기 여러분을 조만간 찾아갑니다. 드디어 동문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문 회장 백

■국경 3에게 너의 그 힘이 꼭 발하는 듯한 목소리를 듣고싶다. 꼭 한번 들려요. 보현 110호로 그리고 YS년내면 전화다오. 내가 OO한다고! -기숙사 국경 94 일동

■법(이)93학번 현역여러분 우리 언제 한번 모여서 진하게 술잔잔합시다. -outside

■타운아, 항상 같이 지내다가 떨어져 나니 너의 빈자리가 새삼 느껴진다.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 위로해주는 마음 변치 않길! -톨크루즈

■자연인 여러분. 출범식날 우리 모두 자연인의 기상을 드높이는 어때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을 해나가는 졸업준비위원회 사랑해요. -여학생국장

■신입생여러분 여기 경주는 보문로의 빛가르수가 유명해요. 한번 바이킹이나 친구들과 함께 거닐어 본것은 좋지 않을까? -한선배

■우리 동문 미스코트 신재석이 춘천으로 가버렸답니다. 열차안에서 울고 있을 그 눈이 생각나네요. -동문

■어제가 화이트데이였다고요. 내년엔 꼭 그녀에게 사랑을 줘야지. -MS

■밭값이 오른다고요? 밭값배고 나면 나 집에 갈 처비없어요. -S

■노천강담 스탠드에 모두 관심을 기울입니다. -賢

■태운아, 항상 같이 지내다가 떨어져 나니 너의 빈자리가 새삼 느껴진다.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 위로해주는 마음 변치 않길! -톨크루즈

###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물생존 대비책

# 식물원, 정신건강 위한 원예요법으로 활용

식물은 인간에게 참으로 고마운 존재이다. 식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산소를 제공해 주며 옷감, 건축재, 가구재, 난방에 쓰이는 기름, 가스, 석탄, 약, 향신료, 염료, 고무 등 많은 것들의 원료가 된다.

또한 식물은 수자원을 보호해 주고, 토양 침식을 막아주며 아름다운 인간에게 미학적으로도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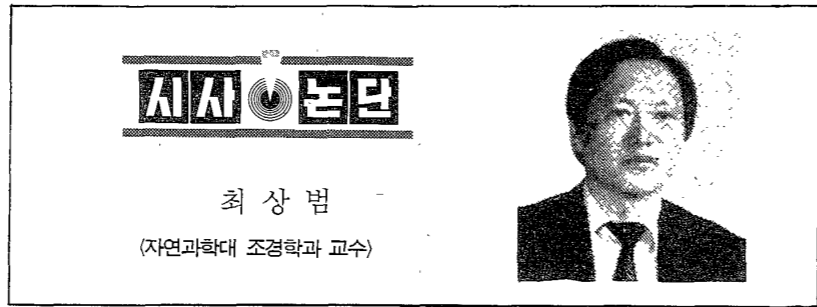
지구상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위적인 개발과 한발 한발 축소되는 천지자연으로 인해 식물의 종은 점차 줄어들어 어떤것은 멸종되었고, 어떤것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더우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과 오존층의 파괴는 식물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식물생존에 대한 환경의 위협이 곧 인간생존의 위협이라고 볼때, 오늘날 식물의 중요성과 그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며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의 학문적연구와 보존에 대한 관심이 눈을 뜨려야 할것이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약초원, 식물원, 관상식물원 등이 있었으나 이것은 식물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학과 교육의 기능을 가진 최초의 식물원은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Theophrastus가 아테네 근처 Lyceum에 있는 그의 학교에 설립한 것으로 그의 스승인 Aristoteles가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초기식물원의 기능은 식용식물과 약용식물에 대한 정보와 원예의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도입된 식물들의 번식과 관상식



시사논평

최상범

(자연과학대 조경학과 교수)

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의 식물원 기능은 식물분류학, 유전학, 유종학, 생태학, 원예학 및 기타 인접학문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위해서 살아있는 식물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다. 식물원은 또한 직업훈련과정과 공공교육시설의 기능도 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이나 희귀종들의 보존 기능도 하며 근래에는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식물원에서 살아있는 식물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것은 식물분류 연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살아있는 자료들은 개체의 변이 분석과 분류학에 관련된 유종 및 교배 등 많은 종류의 통계적 연구에 이용된다. 새로운 DNA 집원을 추구하는 유전학자, 식물염색체를 연구하는 의학연구자, 내명성 품종이나 신종종을 연구하는 원예화학자에도 이용된다.

식물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센터로서 교육과 학습경험을 위한 교실, 실험실, 포장, 온실, 현장 자료 등을 제공한다.

대학식물원은 그 지역의 식물상, 식물분류, 원예, 번식, 애분생태학, 교잡육종, 수목학 등의 과정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교육활동은 정규적으로 계획된 강좌와 현장실습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또한 특별한 관심을 끄는 코스 즉 요리, 약초, 겨울철의 정원수 관리 등의 강좌도 일반인이 이용 가능하다.

생물교사, 자연과학자, Garden Club의 회원 등을 위한 워크샵이나 단기 훈련과정은 대표적인 식물원의 교육프로그램이다. 희귀종에 대한 심포지움, 천연지역보호, 정원설계의 관리 등 그밖에 이에 관련된 많은 사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센터로서의 식물원이 가지는 기능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통한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식물자원을 보다 잘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식물원에서는 자생식물이나 도입식물의 식법, 번식방법, 병충해 방제법, 식재시기와 방법 등의 모든 지식을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식물원의 직원 감독하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식물들을 위협하는 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이식 하기도 한다.

어떤 식물원에서는 일반인과 정신장애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원예요법(Horticultural therapy)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식물원은 이처럼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를 건강하게 해주며 즐겁게 유쾌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건강감을 해소시켜주는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식물원의 기능은 식물에 관한 연구, 교육, 보존, 공공서비스 및 레크리에이션 등이며 미국에서는 1800년 Union College에서 최초로 대학 식물원이 설립되었고 현재에 약 60여개에 이르며 그 운영 및 관리는 대학교 직속, 단과대학, 또는 관련학과에서 시행한다.

연구기능으로는 식물의 분류, 번식, 육종, 보존, 작용, 원예, 생태 등이며 교육기능으로는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식물강좌와 환경보존 교육, 영구전시실, 특별전시실운영, 식물의 이름표달기, 식물원 관광안내 등이 다.

보존기능으로는 Special collection, Conservation collection, Green house 운영이며 일반인에게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개방도 하며, 방송과 강연 및 신문 컬럼을 통해 원예 및 정원수 기르기 등의 강좌를 제공해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학에 식물원이 설립되어 식물에 대한 연구, 교육, 보존, 공공서비스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기능을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 사설

## 등록금 재협상을 기대하며

어느덧 3월중순, 개강을 한지도 2주가 흘렀다. 교정잔디에서 한가로이 3월의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아직 풀지 못한 과제와 우리에겐 남아있다. 매년 학기초마다 동학을 뜨겁게 달구는 등록금문제로 인해 새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다. 등록금협상다운 협상 한번 진행되지 못했고 고지서 일방발부, 납부연기투쟁으로 이어진채 의례적 행사처럼 우리는 또한한 흥역을 치뤄야 하는가.

그간의 등록금협상과정을 돌아볼 때 우선 학교당국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줄곧 협상자체가 있을 없다는 논리로 어떠한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학생들을 이해와 설득시키려는,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이 교수 직원과 더불어 동공의 구성원임을 인정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인사이동을 이유로 학교당국이 협상태이블에서 열어나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했는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적인 합의를 찾는다는 것은 무리이다.

학생대표추출에도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일방발부자체를 협상의 파기로 단정하는 것은 고지서 발부후에도 협상의 의지는 있었다는 학교측의 변명의 여지를 남겨놓아 강경일변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의견개진운동을 통해 기존의 상층위추 협상을 탈피하려는 제2회 총학생회의 노력은 평가할만하다. 의견개진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협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속에는 과단위 복지유구안까지 수렴된다고 하니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에 또 한가지 근거마련이 될 듯하다.

지난주 실시됐던 비상학생대표회의와 이후 진행된 과단위 총회를 통해 현 등록금책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되었고 학교측 또한 재협상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제 새롭게 협상을 시작하는 것만 남아있다. 학교측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협상의 주체로 맞아야 한다. 뒷날이되면 학생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훈계해야하는 대상이 아님을 인식하고 학교발전은 함께 고민할 주제로 인정해야함이 협상에 임하는 우선 과제인 것이다.

등록금협상자리가 단순한 퍼센트짜기 싸움이 아님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교측의 주장대로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한다면 학교 발전에 대한 고민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발전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합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등록금 책정의 모범담안을 창출하는 것이다.

### ◆ 총동창회비 어떻게...

## 20일 '4학년 대의원 대회'에서 해결할 과제 총동창회 장학회 설립... 동문 참여·관심 요구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총동창회비 고지서 발부로 인한 파문이 학내에 안개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누군가 의아해 한다. 동국대학교 학생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비를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내는건 당연하지 않은가.

물론 당연한 일이다. "동국의 발전을 위해 동문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한 때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동창회는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고 회비 납부여부는 오는 20일 4학년 대의원 대

회에서 결정할 과제로 남겨 놓았다.

소위 학교측의 주장대로 뭐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두가 당연시하는 상황을 총동창회가 결코 넘어지는 것일까.

분명 학생들의 손에 의해 꾸러진 총동창회가 첫사업을 시작하는 때인 요즘 가장 많은 발언을 하며 학생들로부터 의견당고자 하지는 않은 것이다.

총동창회측의 문제 제기

그럼 우선 총동창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를 들어본다.

제27대 총학생회 학자위원장은 최용배 (국교4)군은 "먼저 88년 총동창회비 납부 거부와 기납부 동창회비의 지급결정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총동창회 개혁이 이뤄질때 회비납부는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이 사안은 당시 학생총회로 결정된 것인데 총동창회에서 학생측과의 이렇다할 대화 한번 없이 일방발부의 형태를 띄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한다.

한편, 경주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종필, 행정4)에서도 "동

창회비의 구체적 쓰임내역과 발부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없이 재학생에게 미래의 동창회 주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의무감만을 먼저 줘서 안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4학년 과대표를 대상으로 동창회비 고지서 회수 협조문을 보냈다. 고지서 발부의 방법상의 문제가 양캠퍼스에서 제기됨으로써 1학기 납부율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 오늘과 내일

이에 대해 총동창회의 사임을 알 아본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올해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동우 장학회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시 교육감 허가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침체되어 있던 동창회의 큰 발전인데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작년 7월에는 '하늘에 핀 눈 두꽃' 공연으로 2억여원의 흑자를 남겼다.

보통의 연극공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흑자이다. 황명수 총동창회

장의 정치적 수완의 결실이기도 하다. 타대학 회장단보다 많은 액수의 회비도 지급하고 있다.

총동창회 김영환 사무국장은 "총동창회비에 관해 학생이 책임하는 건 우리학교 밖에 없다"며 안락까운을 표하고 "웬만한 대학 동창회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총동창회는 어느 정도 동창회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려되는 비는 회장의 정치적 위상이나 개인적 능력이 총동창회 발전과 한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 대학의 동창회는 대표의 개인적 위상이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떠나 발전적 토대가 굳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우려는 총동창회가 동문의 자연스런 동창회 참여 및 회원간의 끈끈한 정으로 여어진 회원간의 결속체로 다져질때 사그러 들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오는 20일 있을 4학년 대의원대회가 동창회 발전 방향 모색의 또다른 귀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양수정 기자)

### 동국만평

이영일



by 영

# 4월15일부터 중앙일보가 아침에 배달됩니다.

오일별 색선신문입니다. 월요일엔 자동차와 레포츠 색선, 화요일엔 뉴미디어색선과 문화 색선, 요일마다 새로운 색선을 그려줘요. 컬러화하여 정보를 훨씬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의학정보는 의사출신기자가, 기획정보는 조사전문기자가 모든 기사를 전문기자가 취재하여 훨씬 깊고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세계화 신문입니다. 국내신문 중 가장 많은 특파원이 뛰고 있는 중앙일보/ 세계의 심장부를 직접 뛰면서 세계의 심정부를 직접 뛰면서 세계의 국내외의 최신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룬 아침마다 배달합니다.



두번째-지방의회의 올바른 운영 방안-민선단체장의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말뿐-실권은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는 실정  
'참여·분권 자치 시대' 완성 위해 주민참여 제도적 보장해야

노무현

(민주당 부총재)

올해 6월 27일로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다. 물론,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왜 그러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첫째, 어찌될런지는 아직 모르나 지금 여당은 통합선거법을 고쳐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의 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하려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주장할런지 모른다. 1920년대 미국에서 벌여졌던 지방자치에 정당의 역할을 배제하려 했던 운동을 애로 들면서 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논박하기엔 적합치 않은 것 같다. 다만, 정당이 소속되어있지 않은 무소속 당선자가 선거가 끝난 후, 대거 집권 여당의 당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 공천 배제 주장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진의를 의심케 만든다.

둘째,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과의 관계를 살펴볼때,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해 결코 만만치 않은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해, 중앙과 지방의 유력 일간지들은 앞다투어 지방의회의 실태를 조사, 보도한적이 있었다. 이조사 항목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라는 물음이었다. 이 물음에 조사 대상중의 87%가 "지방의회에 권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또 지방의회

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은 어디라는 물음에 "중앙 정부"라는 답이 절대 다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단순한 모양 갖추기식의 제도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사무배분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를 1백으로 놓고 볼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는 46% 수준에 머물고 나머지는 다 중앙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무가 자신의 사무중 절반을 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인 것이다.

일례를 들어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의 예를 보자. 현재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계획의 입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결정권자는 건설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말뿐이요 사실 대부분의 실권을 다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라는 구호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힘들다.

네째, 이외에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분권과 자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68%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 특히 군단위로 가면 사정은 더욱 어려워져서 평균 27%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방재 및 자체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30%인 77곳이나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는 우리의 민주주의사에 커다란 진보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그것은 2백51명의 민선 단체장들과 4천3백44명의 기초의원, 8백66명의 광역의원들이 "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위해 나설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원주군 의회는 "주민발안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의회에 주민이 직접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게 해 준, 아주 진보적인 조례였다.

그러나 이 조례는 대법원에서 "대의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못했다.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해야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는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 발전사속에서 오늘날처럼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주민의 참여"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때문이다. 중앙의 대리 정치 형태에서 주민은 단순한 선거 투표기에 불과하다. 때

문에 주민은 정치에서 소외되어 날아가면 갈수록 지조한 투표율을 보이게 된다.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30%대이고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가 49%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참여속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이점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버렸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는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민 참여는 주민참여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지방자치기 민주시민의 지방자치제도는 위력에 활력이 되는 이유임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기본 정책인 "정부 혁신의 길"이라는 정책집은 주민 참여를 통해 개혁을 해온 지방정부의 경험들을 중앙정부에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분권과 자치"를 제도적 완성하는 것이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정태홍(고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임시의장 기자 간담회  
'95년, 대중적 학생운동의 새장을 열어야 할 해

올해 학생운동을 이끌어갈 제3기 한총련 임시의장 정태홍(고대 총학생회장)과의 간담회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로 지난 9일 고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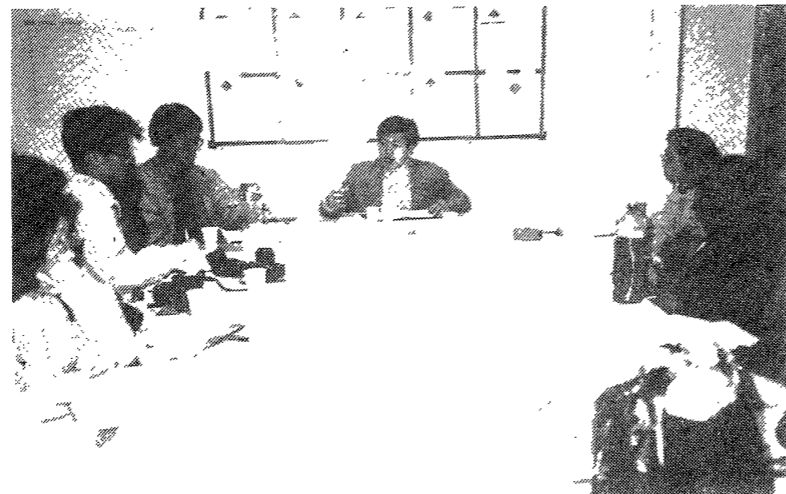
더욱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는 한총련의 올해 사업기조와 방침들을 들어본다.

-정권의 무한경쟁논리가 대학에까지 침투해 있고, 대학총장평가기준제와 교육시장 개발로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한총련에서는 '교육재정 5%확보'의 구호로 일관하고 있다. 이 5%가 확보된다면 각대학들이 서로 때내려고 애쓸텐데, 전반적인 대응방안 이 있다.

=교육문제에 대한 한총련의 모토는 '민족대학 건설'이다. 이것을 위해 물적, 인적, 법 제도의적, 사상적 토대 마련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교수 직원 학생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무한경쟁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시켜 대학의 본래적 의미를 잃고 학원화 되어가는 것을 막는, 대학 재지리 찾기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각대학의 총학생회가 차를 부딪히는 문제가 등록금투쟁이라고 할 수있다. 이문제를 풀어나갈 한총련의 입장은 어떤가.

=한총련에서 등록금투, 등록연기등의 기간을 제시한다해도 모든 대학에 똑같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방안이 아니라 중심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을 찾아가고 고민하고 있다. 우선은 각대학의 상황을 총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9일 고대에서 열린 한총련 임시의장 기자간담회에서는 임시의장의 경선에 대한 의견 등 올해 한총련 사업기조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

-흔들릴 지금은 학생운동의 침체기, 또는 와해기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학운의 중심세인 한총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침체기, 와해기라는 말은 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한총련은 여전히 범학운동세력 속에서 가장 힘있는 조직이며 열정과 패기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것을 하나로 모은다면 다소 어두운 분위기도 풀어나갈 수 있다.

-법민족대회를 8-15 통일민족대회로 바꾸어도 대중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범민족적 통일운동의 방안은

되는 모습이며 경선이 되어야 한총련 내부의 통일단결이 될 수 있다. 제도인론에서 보듯만 것처럼 '연고전'이라는 시각은 배제되어야 한다.

-한총련이 90년대에 가장 크게 요구 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95년은 민족사의 전환기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조국통일이다. 이외에 과 단과대 학생회의 강화, 학생회 건부의 신뢰성 획득, 그리고 대중적인 학생운동 등이다.

-한총련 임시의장으로서 전대협과 한총련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대협은 시대적 상황때문에 정치투쟁의 중심으로 있고, 한총련은 생활·학운·투쟁의 공동체로 거듭난 조직이다. 또 전대협 시절의 대의원은 총학생회장까지였지만, 실제로 학우들이 인수되는 조직이 되기위해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구조가 확장됐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학우들이 주인되는 조직이 되기위해, 그리고 초반에 제기됐던 대학의 체제리 찾기위해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학내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공동체문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먼저 대중문화와 대학문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야한다. 실제로 대중문화를 아예 배척하는 논리는 학우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이유리 기자)

다음호에 지방자치 본격 개막 시리즈 세번째 기획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지방민의 자세와 역할을 심층한다.

**동약로**

"아니 이런 대자보" "너 방금 이 대자보 봤었지,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 뜯어도 상관없다는거다." "아니 뭐요" "....." "지난 9일 다량관에서 몇몇 총학생회일꾼들과 4명의 학교 직원 간에 있었던 마찰이다. 요즘 학내는 학교측과 총학생회측 사이의 찬 바람이 싸늘하기만 하다. 이 찬바람은 2천여명의 신입생과 많은 학부모를 만능광장을 꼭 때문 지난 2일 입학식장에서 총학생회장인 안진우(국고4)군이 인사실에서 한 "민족의 재건을 위해 민족간부를 키우던 유일한 민족대학인 본교가 몇년간의 인맥과 파벌로 인한 이기주의로 퇴색되어 삼류대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더욱 매서워진 듯하다. 이 발언이 있던 직후 한 직원은 "신입생을 축하해 주어야 할 자리에서 학생을 대표한다는 총학생회장이 삼류대운운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양된 목소리를 낸다.

**기류차**

급기야 대응이라도 하듯 지난 9일 학생처장 명의의 '성숙한 학생활동을 기대하며'라는 문건이 이날 열린 비상학학생대표자회의에 뿌려졌다. 이 문건에는 이문재만이 아니라 총장 선출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 등특금 협의과정에서의 총학생회의 행동과 자세에 대한 학생처의 입장이 강경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 한 학생회 일꾼은 "논리에 비약이 많다"며 "특히 88년 학자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학교와 학생간에 어떠한 합의사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학생처장이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라고 말한다. 학생처장 명의의 문건 속에 있는 한 문장이 떠오른다. "물어봐 보면 어느것 하나 학교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본 적이 없었다." (박태용 기자)

## 우리가 있는 곳엔 언제나

"커피? 난 블랙! 왜냐?"  
"향이 참 좋구 실랑두 없어. 또 느끼하지도 않구 개운해. 괜히 맛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내게 딱 맞는 커피는 싱글."  
"내가 있는 곳엔 언제나 테이스티스 초이스 싱글이야."  
"블랙이라 좋구, 간편해서 더 좋은 것 같아."  
"난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는대구!"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오죽원 큰 스님 초청법회 “깨달음의 현대적 의미” 초록

생명 본질 깨달아 자유인으로  
비판없는 서구지향적 태도는 바른삶이 없어서

봄 기운이 대지의 공간을 충만하게 채  
와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 새하기를 맞이  
하여 우리 대학의 승석구 총장을 위시해  
서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과 함께 정법  
선양의 선봉장인 정각원 법당에서 법회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봄은(佛恩) 이라고  
생각합니다.

200에 들어와서 많은 종교와 종파가 생  
겨났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도 다양해졌  
습니다. 그런 종교들의 교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믿는 종교 또는 믿음의 종교입  
니다. 어느면에서 무엇이든 믿게 되면 마  
음이 푸근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누그러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근본적으로 깨달은 종교  
입니다. 주관적으로는 깨달고 객관적으로  
는 깨닫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무엇  
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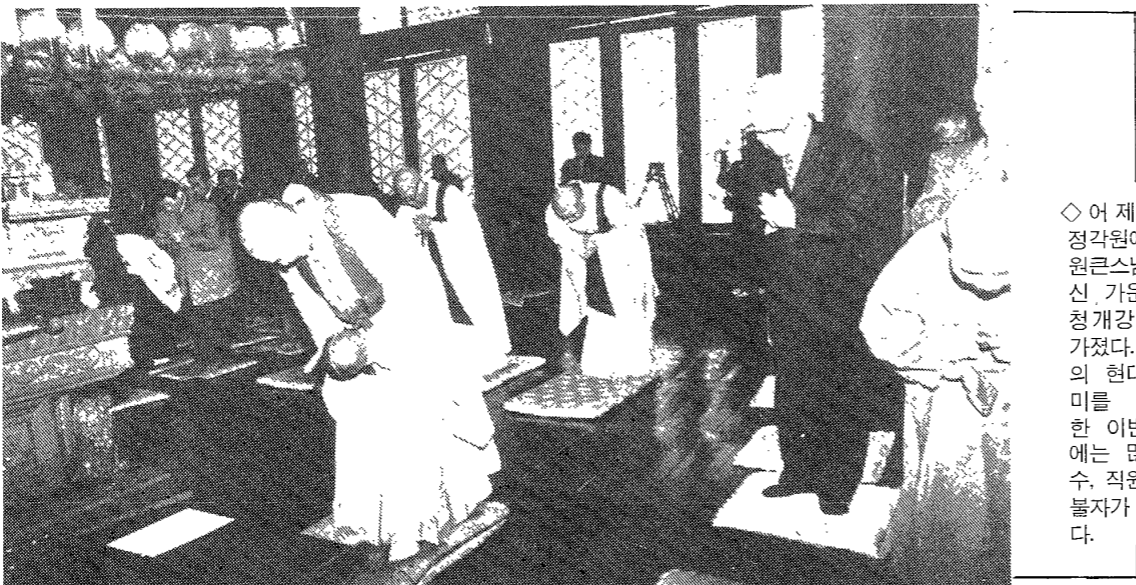
2600여년 전 불비니 동산의 무우수나무  
아래에서 싯달라 태자가 마야부인의 우월  
(右屬)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생하여 땅에  
발을 딛자마다 사방으로 7보를 걸으면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유아독  
존”이라고 사자후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차이를 초월한 부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직 하늘과 땅을 의지해서 만물이 지  
속적으로 생장해 가는 생명체가 존재하  
는 것일까요. 만물이 큰 이로운을 주는 하나  
밖에 없는 생명체가 ‘천상천하’에 가장 존  
귀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더라도 이 생명체 보다 존귀한 것  
은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체가 만물을  
만들어내기도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지옥  
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기 때문에 이 생명  
체가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전  
지전능한 초월자(佛)이 있다고 긍정하거  
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종교를 갖는 것은 ‘안심입멸’하려는 것  
인데 그런 종교를 믿음으로써 공포와 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런 종교 때문에 전쟁과 살상이 계속되  
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고 이러  
한 양심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종교 때문  
에 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오  
면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꽃피게 되었  
고 사람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르  
게 사는가?”하는 교육도량으로 출발했습  
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불  
교본위를 부정하고 심층적인 비판없이 서  
양의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서양문화는 과학일변도인데 그러다 보  
니 지구는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러한 것을 그들은 가장 고도의 문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 어제 (14일)  
정각원에서 녹  
원스님을 모  
신 가운데 초  
청개강법회를  
가졌다. 깨달음  
의 현대적 의  
미를 주제로  
한 이번 법회  
에는 많은 교  
수, 직원, 일반  
불자가 동참했  
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서양의 과학과 불교  
적인 정신문화를 조화시켜 흔들리지 않는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일본제품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와 과학을 조화시켜 지도적 위치에서 흔들  
림 없이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비판없는 서구  
지향적 태도는 기성세대 교육자들의 주체  
성없는 문화양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올바른 실천할 것이  
데 실천이 바르게 안되는 것은 올바른 가  
치관, 역사관, 문화의식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는다는  
불교의 선(禪)이 아주 유용합니다. 선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지심’을 갖는 수  
행입니다. 즉 마음을 작용시키되 부동의  
경지에서 작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섯살에 걸쳐 6년(안,  
이, 비, 실, 신, 의)을 가지고 6년(색, 청,  
향, 미, 촉, 법)을 대할 때 마음이 대상에  
때어맞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惡業)과  
행동(惡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혹의 그림자로 얽힌 육체적 생명권을 가  
지고 18계(6근, 6진, 6식)의 늪을 반  
복하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천지만물은 제각기 생명의 본질인 불  
성, 자성, 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만물을 살게하고 움직이게 하고  
작용하게 합니다. 이 생명체는 천지 우주  
간에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살고 있는 기  
운(氣)인 것입니다. 이 하나인 생명체  
에서 중생은 각각 다른 생각과 행동을 일으  
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업이 형성되  
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체는 받아심경에서 설하듯  
이 ‘무안비설심’이지만 여기에서 온갖  
세계가 건립되니 생명체가 바로 조화유인

것입니다. 가상으로 형성된 이 몸에서 생  
명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념과 무작(無作)으로 복을 실천하면  
망상이 다하고 작위(作爲)가 끊어진 자리  
에서 생명의 본질이 하나로 귀하게 됩  
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서로 장애가 되어  
다투던 망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구 전  
체가 나의 집이 되고, 모든 중생이 나와  
동일한 하나가 됩니다. 그로써 ‘안심입멸’  
을 갖는 참 자기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  
다.

무념, 무작으로 본분자리의 합하게 되  
어야 갈등과 증오가 사라지고 자와 타의  
대립이 끊어져 상(相), 락(樂), 아(阿), 중  
(衆)의 열반이 실현되어 자기 자신이 부  
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우  
주의 생명체인 이 마음을 의지하여 수행  
을 통해 부처가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진리대로 행하며 받드는  
것이 불교입니다.

향상되고 발전되려는 의식을 가진 사람  
은 자연히 불교를 행하게 됩니다. 불교란  
지혜를 깨달아 점점 생명의 본질에 다  
가하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생불멸의 본질은 상황에 따라 증감이  
없는 법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파도 자체는 바로 물이듯  
이인과 연애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가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변치않는  
생명의 본질을 관찰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중은 업도 나쁜 업도 모두 생명의 본질  
을 의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이 열  
린 사람(瞎者)은 눈비가 바로 보리가 됩  
니다. 이 도리를 깨달아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부)

학술 단신  
고구려연구소 발표회

고구려연구소 제1차 학술발표회가 오  
는 18일 오후3시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에서 개최된다.

“고구려어의 연구-갑골문, 일본어등  
과의 연계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논문  
을 본교 신용태(일본학) 교수가 발표하  
고 도수의 총내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  
선다.

발표요지는 고구려 말은 한자를 만든  
부족들의 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한자 이전에 그림문자를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난다.

아래아 한글 3.0판 발표

워드프로세서 아래아 한글을 윈도우  
용으로 고친 최신판인 ‘아래아 한글 3.0  
판’ 발표행사가 오는 18, 19일 양일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첫선을 보인후 전  
국 순회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한글과 컴퓨터  
는 이번 전국순회 발표회를 통해 아래  
아 한글 3.0판의 시연과 네비젟이나 미  
뤄진 배경을 설명하고 주요기능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게 계획이다.

아래아 한글 3.0판은 윈도우용 한글  
워드프로세서는 최초로 윈도우95에  
서도 쓸 수 있으며 조합형 한글을 채택  
해 옛 글자를 포함한 모든 한글을 표시  
할 수 있다.

(사회부)

중국인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해설

불교 아카데미즘 현대적 계승  
보편적 가치와 개성화 함께 추구

건학이념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습과 인격을  
이르르까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하  
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교육목적  
건학이념에 따라 학습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박선영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불교정신의 핵심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  
회 내지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  
가 실현되게 하는 데 있다. 이 실현은 결  
코 좌절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不  
退轉)의 의지로 자신을 연마하여 깨달음  
(自覺)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하는(覺他)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감으로  
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민족은 이러한 불교정신을 주체적  
으로 소화하고 수용하여 전개하면서 한국  
문화였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빛나  
는 문화는 창조·계승·발전해온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유형·  
무형 문화재의 거의 전부가 불교에서 비  
롯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에까지 크  
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가운데는 인도에  
까지도 역사술을 심오한 사상이나 학술적  
이론은 불교 뿐이었다. 더우기 바다에 의  
해 고립되어 미개해 있던 일본에게 문화  
와 문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것 또한  
한국의 불교인들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  
불교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나 국제적으로  
나 불교를 통해 빛나는 공헌을 한 우리의  
민족종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난  
의 시기에는 호국의 이념으로 감연이 일  
어나 민족의 생명과 문화를 지켜 오늘에  
이르게 했다.

불교 중국의 역사는 한국이 근대로 넘  
어오는 길목에서 제국주의세력에 의해 국  
가와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  
게 되자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위와 같은  
민족사담당의 주도세력을 자임하고 교육  
구국의 신념을 모아 명진학교를 개교하면  
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문탐구와 인격  
연마라는 진정한 아카데미즘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시작은 천후백년 가까이 불  
교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계승·발  
전되어온, 그래서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랜 불교적 아카데미즘을 근대적으로 계  
승하여 새롭게 출발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제 국제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계화  
라는 인류문명사적 크나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발상 자체의 전환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  
게 되어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떠나서  
는 그 어떤 것도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 보편성은 언제나 특수적  
계기를 통해 발휘되고 실현된다. 세계화  
가 강조되면서 동시에 지방화와 개성화가  
같은 두루로 중시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이다. 이러한 흐름은 인류 전체의 세계사  
적 방향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불교도 이와 같은 세계사  
적 방향에 발맞추어 일류보편의 가치와  
함께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어느 대학  
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개성화를 새롭게 가  
다듬고 전개시켜야만 한다. 이번 우리  
동국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의 새롭게 정  
정하게 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동  
국역사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맞  
게 된 세계사적 역사성에 부응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끝낸에 예정된  
불교의 대개혁에 대한 준비비만 보는  
것은 이 작업에 대한 인력이 너무 좁거나  
안일한 해석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새로 제정된 건학이념과 교육  
목적에 있어 그 정신적 그리고 역사적 배  
경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체적인 해명이  
되었다 하겠다. 다만 건학 이념에서 “자연  
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과 교육목적 가운데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그 의의  
를 좀더 부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동안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해온 유  
대니즘은 모든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것으로 구별하고 인간 이외의 것은 인간  
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온 그리스  
이래 서양의 사고방식이다. 이는 산업화  
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계기로  
서양 자체에서도 이미 비판되어 극복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구미를 비롯  
해 세계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  
는 불교를 위시한 동양사상에 대한 연구  
가 근래 여러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은 바로 이런 문명사적 배경과도 크게 결  
부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연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진정한 평  
화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하  
는 것으로 자각되고 있다. 모든 기술과 산  
업 또한 자연과 친화(親和)적이어야 한다  
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의 바탕으로 하고 있  
는 우리 동국에게는 화합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함에 있어 세계 어느 대  
학보다도 남다른 역할과 사명이 있다 하  
겠으며,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  
화”는 바로 이런 사명의 지각에 기초한  
개성화를 통해 민족과 인류사회의 기여코  
자 하는 동국의 세계사관적 의지표현이라  
하겠다. 이런 의지는 동국의 교육과정  
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수록 그 실현의  
길이 열린다 하겠다.

LG전자 LG ISE 멀티미디어시대의 CD-i 학습법-LG ISE Play the Future Today. 영자자막, 한글자막을 자유자재로-영화를 보며 대학하듯 공부한다-ISE. 영문/한글 영화대사기 자막으로-멀티캡션 기능. ISE란? Interactive Screen English의 약자로 CD-i에서 채택되는 CD-i플레이어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대화형 영자막, 영자자막을 자유롭게 활용, 영화 관련 원전본을 통해 영자막을 익히는 하이미디어 시대의 첨단 영어학습 교재입니다. 지금 ISE회원이 되시면- CD-i플레이어 한대를 대어해 드립니다. ISE 멤버십 카드로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매일 수준 높은 영화 두편과 부교재를 드립니다. 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멀티미디어 기기. CD-i 제품으로 CD음질과 화질을 즐기며 오디오CD, CDG, 비디오CD, 포도CD까지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 비디오, 노래방, 게임기 등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ISE회원 및 가맹점모집 문의처 (02) 785-6779, 787-4010~14, 787-4016, 4020, 4031~4 ISE타이틀 제작: LG미디어

◆ 우리의 대학문화 읽기

학내 가득찬 대중문화 뒤집어보는 건강함 있어야

시대정신·학생들 요구 담은 대중적 문예운동 시급



◇신세대를 자부하는 90년대 학벌들의 장점은 보여주는 것을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작하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문화적 욕구가 더욱 커진 이들에게 건강함을 가진 영화제, 노래제, 출판마당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 색깔을 가진 공동체문화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노래 하나



이곡은 80년에 퇴임한 서기영(경향행정학)교수가 작곡가 김동진씨 곡에 가사를 붙인 것이다. 30년을 재직하던 모교의 신입생을 위해 본 지면에 처음 공개하는 곡이라고 한다. 새봄에 흥얼거리기 좋은 서정적인 노래 하나를 소개한다.

공감시간마다 들려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좋은 미술품을 관람할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잡지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멀리 갈 것없이 학내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비어서 허황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오락실, 만화 가게 등으로 발길을 옮긴 적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것은 대학가에 전반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문화부재현상'과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세계일보..." 등의 광고카피가 주는 무의식적인 괴리는 심각하다. 반드시 이것이 조장하고 있다고만 할 수 없지만 '무한경쟁의 원리'에, 취직·학점에 위협받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생선의 문화보다는 '마시고 즐기'식의 소비행위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학생들이 찾고 있는 대중문화의 양상을 보자. 그리고 학내에서,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 문화적 욕구를 건강하게 대처해갈 방안을 모색해 보자.

비디오방-이것은 가는 자체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보고 난 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 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점을 비교적 잘 대처해 가고 있는 서경대의 경우 '학내영화제'를 진행하고 있고 2, 3백명의 학생들이 관람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다. 이것에 따른 결과로 학교 앞에는 비디오방이 하나 뿐이라고 한다.

노래방-요즘은 술자리에서 노래를 함께든 혼자든 부르는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 '좋은 반주가 있고 가수들처럼 해볼 수도 있는 노래방이 있는데 구태여 술집에서 그럴 필요 있느냐는 생각이다. 지난해에 연세대에서 있었던 새내기 노래경연대회는 다소의 문제는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 또 작년 여름에 본교에서 있었던 '기쁜 우리 젊은 날' 녹화장소에 발디딤 틀 없이 사람들이 모였던 것도 상가해 볼 일이다.

라카페-디스코텍-한총련 출판식, 범민족대회등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춤춤을 학교에서 펼칠 수 있는 출판마당을 열어보는 것도 대소 중문화에서 받아안을 만한 것이다. 배워서 따라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창작을 하려는 욕구도 많이 생긴 것이 요즘 신세대의 좋은 면이다.

여기서 잠깐 영화 얘기를 해보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 공원'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해동안 자동차를 수출해 얻은 이윤을 털어서는 고소속 재원이 됐다 소식,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자원으로 영화가 만들어 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이미 언론에 보도

된 식상한 이야기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문화라는 형태에 '산업'이라는 낱말이 붙고 '전쟁'이라는 말이 붙을만큼 냉정 해체이후 사상의 문화침탈이 범람하고 있고 심각한 것은 대학도 이 물결에 흔들리는 조각배가 됐다는 사실이다.

넘쳐나는 할리우드 영화의 홍수 속에서 자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세가지 색' 영화를 감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창출을 해낼 수 있는 대학에서 각 대학 나름의 색깔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문화창출의 축이 패아할 시대정신은 이제 '반외세,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해를 꿈꾸며'를 부른 서태지의 도움 인지는 몰라도 대중문화를 즐기는 이들도 통일 운동을 시대업에는 틀림없다.

대중문화를 배척하자는 논리는 더이상 통용되는 자리가 없기는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 의식과 건강한 대학의식이 거세어지고 현실을 과감하게(!) 비판해낼 사람들이 있는 곳이 대학이다.

'명달'의 썰렁'이 우리를 스쳐가고, '모래시계 백제회'가 나타나 갑자기 검도열풍이 불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문화평론가의 책재목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볼 일이다.

(이유리 기자)

달 하나 천 강 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게하라



이제 신입생 입학식도 치루고 입학기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총장을 비롯하여 학교발전엔 헌신하실 보직담당자가 새로 정해지고, 신입교원도 많이 모였었다. 풍대가 다시 한번 도야의 전기를 맞은 듯, 동국의 구성원들이 새봄의 기운을 타고 새로운 각오와 부른 기대속에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속해있는 위치가 바뀔 때 가치기준도 바뀌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대학생이 되기 이전과 이후, 보직을 하기 이전과 보직을 맡은 뒤 등등, 학생시절에 피땀은 정열감으로 규탄하던 대상이 졸업후에는 정작 그 학생 자신의 모습이 되던 일을 과거에도 슬하게 보아왔다.

그런데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이론과 실제 응용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소속된 위치가 오르거나 이전과 이후의 관심도와 보이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충판단이 달라지고 가치기준이 새로 설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영리 때문에 태도가 돌변하는 이들도 많다. 움직이는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남에게 적용시키는 기준을 전혀 달리함을 예사로 접하게 되는 것이다.

원인이 좀더면 즐거운 과보를 받고 원인이 나쁘면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인과법칙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적용되는 진리이다. 동기는 좋지만 좋은데 결과가 좋다면,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쁜 일은 있을 수 없다.

자기에겐 선인선과만 적용되고 다른이에게는 악인악과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얼마나 세월이 흐르던간에 인과응보는 필연적이다. 잘못된 일을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있어 버린다고 해도 인과응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제자들에게 교화를 하러 떠나보내 시던서 하신 유명한 전도의 선언이 불자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다. "만인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게하라"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셨다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출발의 동기도 좋고 중간 진행과정의 방법도 좋고 그 결과도 좋은, 동국인의 새출발이기를 새봄의 달나라에 건다.

전 호 련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 여기 한 번 가보세요!!

꽃다지 콘서트 "한걸음씩"

노동가요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꽃다지'에서 노동가요 공식 음반 발매에 맞춰 1년만에 콘서트를 가진다.

3월24일부터 4월2일까지 열출 동안 총 19회 공연을 할 예정으로 주내용은 모두 5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는 '바로 그 한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라는 모토로 동지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자신감 있는 변화로 세상을 열어가자는 이야기다. 2부는 '다함께 노래를 배워 봅시다'라는 내용이며, 3부는 게스트 마당으로 '노동가요 공식음반 발매기념 꽃다지 콘서트'를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이다. 4부는 '뮤직 다큐멘터리로 보는

투쟁과 희망의 노동운동사-한걸음씩'으로 일제시대에서 태동한 자료화면과 함께 시대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5부는 관객들과 같이 하는 자리, '다함께 노래를'이다.

민중노총이 출범하는 95년을 기념하는 공식음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번 콘서트는 4개월간의 설문작업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민중에게' '가야하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 널리 알려진 민중가요가 들려진다.

대학로 소극장 '오늘'에서 무대에 올려지고 입장료는 1만원이다. 문의는 꽃다지 (032-5301)로 하면 된다.

(문화부)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뉴욕대입

이제, 세계금융의 중심부 뉴욕을 사고 싶다!



1년간의 현지화교육에 발령받은 뉴욕 현지법인에서의 생활-회사의 해외독립과관계에 따라 제약없이 자유롭게 쌓은 현지화의 체험을 심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이곳 뉴욕법인에서의 내 첫 임무는 해외투자-금융개발의 물결속에서 우리 시장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의 직접투자를 통해 우리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또 다른 승부수가 될 것이다. 국내최대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국제화의 광명담에 조금은 거대한 야망을 품어본다.

세계금융의 심장부 뉴욕에 내 이름 석자를 반드시 남기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뉴욕을 사고 말리라...



삼성생명 국제사업부 오준성

보통에서 국제금융서비스까지 국제화를 선도하는 삼성생명-국내최대의 금융회사로서 금융개발의 물결에 당당히 맞서 21세기의 국제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



삼성생명

회사소개 및 취업상담  
대상자 - 9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간 - 95.3.15 ~ 3.24  
장소 - 본관 취업자료실  
시간 - 10:00 ~ 16:30  
연락처 - 핸드폰 : 011-274-3764, 5  
호출 : 015-132-4262, 3



### 매인대학 해외연수생 모집

7월31일부터 8월25일까지 연수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는 본교 자매대학인 미국매인(Maine) 대학에서 공부할 해외 연수생을 모집한다. 연수기간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4주코스이며 대상은 본교학생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신청을 받는다. 경비는 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1백50만원과 교통비 왕복 80만원으로 선불이다. 최소 10명에서 30명가량을 모집할 예정이고 모집기간은 4월초부터 5월말까지이다. 매인대학은 미국동부에 위치한 학교로 지금까지 주로 연수지로 갔던 서부의 대학보다 질이 좋고 낮은 학비를 위주로 신청을 받는다. 경비는 학비와 기숙사비를

### 통일맞이 새내기 농구큰잔치

“학생회 주인으로 설 수 있는대중사업”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는 제2회 95 통일맞이 새내기 농구 큰잔치를 오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만해광장과 공대농구장에서 치를 예정이다.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를 개최했던 이전과는 달리 각 단대별로 예선 경기를 치른 후 우승팀들이 본선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학생회 강찬구(국교 4) 생활체육부장은 “새내기들이 스스로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학생회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대중사업이 될 것”이라고 이 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모든 단대, 학과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분위기에서 본 대회를 학생회 사업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여학생이 각각 5명씩 출전해야 하는 등의 유의사항이 있는 이번 경기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5일=95 통일 맞이 새내기 농구 큰잔치 광고 △20~21일=접수 △22~29일=각 단대별 예선 △30일~4월 4일=본선 경기.

### 학생수첩 제작·배포

대금 2천원... 1천원 2학기에 납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공4 이하 학복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학생수첩을 배포한다. 그동안 학복위는 학생수첩 제작을 위해 타대학 학생수첩 견본수집, 학생수첩디자인 조사등을 거쳐 '95년 학생수첩 제작을 위한 의견조사 및 수첩 전시회를 실시하고 의견수

렴 결과 다수가 시스템 다이어리 형식의 작은 수첩을 선호한다는 분석결과를 내어 이에 맞게 학생수첩을 제작했다. 수첩대금은 2천원으로 정해졌으나 등록금 납부서에는 이전의 수첩대금 1천원으로 고지되어 나머지 1천원은 2학기 등록금 납부서에 추가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 여학생부처, 영화상영

취미·교양 특강도 개설

여학생부처(부처장=박명희·가정교육)는 작년에 이어 올 1학기에 도 ‘삶’을 조망하는 영화세계를 실시한다.

여성의 현실, 현대사회와 가족, 역사속의 인물, 전쟁과 사람들 등 그리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행사는 본교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학생회관 2층 영화관에서 진행된다. 3월의 영화는 △15일=세상밖으로 △22일=남자가 사랑할 때 △29일=책 읽어주는 여자가 방영된다. 또한, 여학생부처에서는 본교 남·여학생이 교내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미·교양 특강을 개설하고자 한다.

강좌는 검도, 테니스, 영화토론, 톨링, 싸이코 드라마 모임, 음악감상, 현대인의 예절(기본에티켓, 메이크업, 헤어관리 등)로 20명 이상 신청시에 개설되고 개설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며 신청기간은 오늘(15일)부터 24일까지로 계산관1층 여학생부처장실에서 신청을 받으며 수강료는 8천원이다.

### 동악 알뜰장터 기획

물품·자원봉사자 모집

여학생부처(부처장=박명희·가정교육)에서는 재활용기회전의 일환으로 필요한 물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동악알뜰장터’를 개설한다. 학내 축제기간 중 실시 예정인 이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5월4일까지 물품을 수집한다. 한편, 여학생부처장실은 이번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 ‘환경이’를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동악환경개선을 위해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교내에 설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 공관위 새 임원진 구성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듯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된다.

공관위 운영위원은 부총학생회장, 학자부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경상대 학생회장, 대학원 학생회장 등 5명의 학생과 학생처장, 노조위원장, 노조위원회 추천 1인의 3명의 직원, 교수회 대표 2인으로 구성되었으나 교수회 대표로 참석하던 배형(경제학)교수가 사퇴함에

따라 교수회는 김진철(정치외교학)교수를 새로운 교수회 대표로 추천하였다. 이는 오는 17일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17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구성과 더불어 △임대계약 심의 결정 △사자기 계약권 △백상 공사 검토와 임대업자 선정 △95학년도 예산심의안 확정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 불교대 해오름식

불상주위에서 경당·찬불가 등 진행

불교대학생회(회장=김인성·불교3)는 내일(16일) 해오름식을 실시한다.

불교대학생회를 강화시키고 선배의 힘과 새내기들의 힘을 한 곳에 집중하며 동악내 등투 선전전을 하겠다는 기조아래 불교대는 불상주위에서 해오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충모(불교3) 불대 문화부장은 “이번 행사는 아래서부터 자발적으

로 준비하고 있다”며 △경당 찬불가 △각과 새내기 공연준비 △걸개그림 △새터사진전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 광명보육원 방문

불교대학생회(회장=김인성·불교3)에서는 18일 대사회 실천의 일환으로 불교복지법인 ‘광명보육원’을 방문한다.

## 직원노조, 임금협정 및 단체교섭

### 기본급 인상·각종 수당 조정 등 논의 예정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1백주, 년기년사업본부)는 화교측과의 1차 95학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교섭을 내일(16일) 오후 4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95년 단체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예·결산 공개 △외국어 교육 후 월 △직원 해외연수 확대 실시 △행정편람연구회 연구 활동 지원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검토 등이 직원노조의 요구사항으로 제시됐고, 작년 단체협약 미이행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협정에 대해서 김윤길 노조위원장은 “단체교섭은 직원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임금수준과 대학수준은 비례하므로 대학발전의 노력과 함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학경쟁 합리성을 위해 재정운영이 공개되며 명분있는 수당 지급체제로 정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 4학년 대표자회의

총동창회비문제 논의

총대의원회(의장=박대용·불교4)

는 4학년 대표자 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6시 사범대 교육매체센터에서 가진다.

지난 9일 열린 비상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회의에서는 총동창회비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박대용 총대의장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총동창회비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명백히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회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유,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이후의 대응 방안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과 18명 지원해 전원 통과

학과적응 어려운 신입생들에게 도움

자연계학과 18명이 전과를 하게 된다.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전과는 본교 자연계학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자공학과(11명), 컴퓨터공학과(12명), 전기공학과(8명), 기계공학과(6명), 화학공학과(7명), 산업공학과(11명), 야간반도체학과(4명), 야간건설통계학과(6명) 등의 학과에 총64명이 전과할 수 있다.

이번 전과에선 전자공학과 9명, 컴퓨터공학과 7명, 전기공학과 1명, 산업공학과 1명 등 총 18명이 지원해 전원 전과한다.

전과결과에 대해 김윤길의 한 관계자는 “학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많다”면서 “자가 선택한 학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과라는 제도가 정착된 것”이라며 다수 학생들이 학과에 적응못해 중도 탈락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전과실시는 매년 1학기초에 시행하고 있으며 1학년 학기당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이 36점 이상, 1학년 총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인 2학년 자연계학과 재학생 대상으로 면접등을 통해 시행된다.

### 단대별 총장 간담회

전일 교원을 대상으로 각 단대별 총장 간담회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총장, 처장 및 단과대 교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대총합평과 대비로 실시한 자체평가 발표하고 이에 따른 건의사항, 학교 계획 등을 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3일=불교대, 문과대 △14일=이과대, 사회과학대 △15일=경상대, 생명자원과학대 △23일=공과대 △24일=법과대, 사범대, 예술대



◇아니 이게 뭐야... 정각교역 공토에는 몇주전부터 정체불명의 폐차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학생들의 눈요기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부)

### ◇개설교과목 분반안내

수강인원의 과다로 다음과 같이 개설교과목을 분반함.

과목명	학수번호	분 반 전		분 반 후		해 당 대 학			
		교수명	강의시간	교수명	강의시간				
한국사	14107-01	황인규	월78	J201	14107-01	황인규	월78	J201	불교, 문과, 이과, 법과, 사회과학, 경상, 생명 자원과학대
					14107-04	김광재	월78	J501	공과, 사범, 예술, 이부대
심리학	15150-02	김진주	목12,금6	J402	15150-02	김진주	목12,금6	J402	문과대, 사범대
					15150-03	우영순	목12,금6	J504	불교, 이과, 법과, 사회과학, 경상, 생명자원, 공과, 예술, 이부대
생명과학	63140-01	김주필	월87,수4	G206	63140-01	김주필	월78,수4	M501	불교, 문과, 이과, 법과, 사회과학, 공과, 사범, 예술대
					63140-02	조운행	월78,수4	G206	경상, 생명자원과학, 이부대
한국의 전통문화	74101-01	임영정	월78,수4	L401	74101-01	임영정	월78,수4	L401	경상, 사범, 예술, 이부대
					74101-03	강신업	월78,수4	L407	불교, 문과, 이과, 법과, 사회과학, 생명자원, 공과대
연극영화론	83101-01	권재우	월78	L101	83101-01	황동근	월78	L101	불교, 문과, 이과, 법과, 사회과학, 경상, 생명자원과학대
					83101-03	신영섭	월78	J401	공과, 사범, 예술, 이부대
연극영화론	83101-02	김중환	목12	L301	83101-02	김중환	목12	L301	불교, 문과, 이과, 법과, 사회과학대
					83101-04	채승목	목12	L401	경상, 생명자원, 공과, 사범, 예술, 이부대
심리학	15150-81	우영순	금456	G206	15150-81	홍영오	금456	L301	주간전학과, 야간학과(영문, 경제, 무역, 경영학과 야간)
					15150-82	유계호	금456	M407	야간학과(회계, 정보, 반도체, 전산통계, 북한,중문, 신문방송, 광고)
초급영어	24101-81	김용기	금45	M302	24101-81	김용기	금45	G203	야간전학과
					24101-82	오석훈	금45	L501	주간전학과
매스컴과 현대사회	66141-81	유일상	월123	M408	66141-81	유일상	월123	M408	야간 전학과
					66141-82	신규	월123	L401	주간전학과

### 1학년 대표자회의 20일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 4)는 전체 1학년 대표자 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5시 연화원에서 가진다.

총학생회는 “이번 회의는 1학년 대표자들이 자신들이 1학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학내의 주제로 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이번 회의 전에 각 단대별로 1학년 대표자 회의를 가진 것”을 당부했다.

### 용곡대 교수 초청강연

법과대학(학장=박영길·법학)은 일반 용곡대학 법학부 김동훈교수를 초청하여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동국관(M302)에서 “한국의 세계화와 일본의 국제화라는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김동훈교수는 일본 용곡대학 법학부학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용곡대학 법학부 교수로 있다.

### 열람실 정상운영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은 방학동안 단속 운영했던 열람실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정상 운영한다.

정상근무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열람과 관계자는 “근로 장학생 선발이 이맘때쯤 이루어져 정상근무가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며 학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정상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2층=(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1시 △3층=(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1시

### 대학원 전기종합시험

대학원(원장=김인홍·정치외교)은 95학년도 전기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원서교부=13일부터 16일 △원서접수=15일부터 16일 △시험일=석사는 20일에서 24일, 박사는 24일이다.

### 학과소식

#### 인도철학과

제11대 학생회장 선거를 공고한다.

△입후보자 등록=8일부터 10일까지 △선거운동 기간=13일부터 15일까지 △유세=16일 △투표=16일, 17일

#### 지리교육과

학생회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작년후보자의 돌연사퇴로 인한 이번 선거 일정은 △후보자신청=9일부터 10일 △전체선거유세=14일 오후5시 제도실 △투표=15일에서 16일 오후5시 △개표=16일 오후5시30분 제도실이다.

### 학전무대

#### 처절한 외침

“...“공부하고 싶어요, 실습하고 싶어요!” 야간강좌 학우들의 처절한 외침은 계속되는 데.

다름아니라 야간강좌 학우들이 컴퓨터 실습실로 선택한 동국관 5층 2개의 강의실의 개조를 약속한 학교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현재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사일정을 묻는 학우에게 관계자 왈 “일정? 아직 시공일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웬 일정?”

#### 속 모래시계

“...“우리학교에서 모래시계 찍었어?”

다름아니라 교수회관과 해화관사이에 있는 정각교 옆의 공터에 유리창이 온통 깨지고 타이어도 4개가 모두 펑크난 폐차가 방치돼 있어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학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악의 단면을 보는것만 같아 무지 마음이 아프네요.”

#### 우리도 울려줘요!

“...15% 등록금 인상의 정당성을 부르짚으며 우리도 울려달라”는 학생들이 있다는데. 다름아니라 근로장학생들이라고.

해마다 올라가는 등록금에 비해 매달 월급은 몇년째 제자리라며 울려 줄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 학생 “1시간당 1천2백원짜리”라고 불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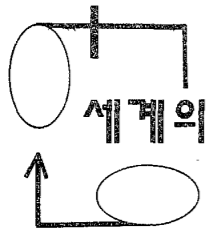
#### 내거, 짬

“...신청기가 시작되자 2주일이 지난 지금 ‘사물함 따먹기’가 유행이라는데.

바로 신입생, 복학생, 휴학생들로 사물함 주인이 아리송해져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라고. 기존에 쓰던 사물함을 넘겨주게 된 한 학우 울리며 한마디 “내 사물함은 어디에...?”

1995. 3. 14

교무처장



세계의 절반 ② '어떤 느낌'과 여성문화

깨어남을 도운 어떤 느낌

침묵·주변화·소외 공동경험

모든 생물체가 같은 자극에 대해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조건, 환경일 경우라도 그렇다. 그것은 아마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남성이 주도권을 장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도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이라는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 공통의 경험에 대한 모든 여성의 반응이 다 그녀의 경우처럼 전복적이지 않다.

몇몇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해방론'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반수 이상의 여학생들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도 충분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여성 해방론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한 반응의 가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여성, 말하자면 여인 상태로부터 벗어 나려고 인간됨을 쓰는 한 인간의 의식의 깨어남을 추적하는데 집중하려는 것이다.

60, 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여권 운동의 시발점이 그러했듯이 그녀의 '깨어남'도 '어떤 느낌'에서 시작된다. '어떤' 위치란 멋진 집을 가꾸는데, 차를 보고 가꾸는 등의 활동을 따라다니는 나라는 분주한 삶을 보낸 중산층 여성들이 밤마다 알 수 없는 공허와 묘한 중요에 시달리면서 '이것이 다란 말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 '어떤 느낌'. 경제적인 면에서 최고의 풍족함을 향유하던 미국 중산층 주부들과 달리, 그녀의 경우는 공립숙에서 썩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다 절박한 자기 표현에의 갈구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미열처럼, 감렬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자기 표현에의 욕구에 시달리면서

그녀는 빗바람 전화 수침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느낌에 귀 기울여 줄까해서, 대화 졸업 후 거의 6여년 만에 나와 한 첫 통화에서 그녀는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거의 30분간 쏟아놓았다. 그 후 오전 9시의 30분간 통화가 몇년이나 계속되었고 그것을 통해 나는 그녀의 느낌과 그 배경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즉 그녀는 지금 깊이 갈라지는 것 같은 착각때문에 거리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편이 귀기우는 시각이 가까워지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며, 아이들을 돌보기가 귀찮을 만큼 무력증에 빠져있다는 사실들.

소외를 비롯한 여성주의자들이 이론 설립이나 글쓰기의 원인으로 본 여성 문화의 문화를 그것이 포괄하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여성이라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공유하는 집합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침묵, 주변화, 소외, 등의 단어로 요약되는 공동의 경험들이다. 이 동병상련의 경험으로 여성들은 힘을 결집시킨다. 다행히 그녀 주변에는 나 말고도 그녀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여자친구들이 몇몇 있었고 그녀들은 강력한 결속감으로 그녀의 느낌에 귀 기울여 주었음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독재자를 이길 방도들을 끊임없이 강요했다. 그녀는 서서히 병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갔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글을 다시 쓸 수 있는가?

김애주 (문과대 영문과 강사)



△상민의 출산장면. 규환의 자살 장면은 새로운 여성적 힘의 생수를 드러낸 장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영화적일 뿐이다.

영화의 패러독스

이현승감독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

영화 매카니즘의 죽음 선언한 신선함 보여

여성 계도적인 면 결점으로 부각

로 부딪쳐나가는 여성의 사회적 조건과 그것을 뛰어넘어 자기만의 발을 만들어가는 당찬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자주인공 상민의 가까이에 위치한 두 남자 원과 규환은 철저히 80년대식 남자라 그려져 있다. 80년대가 짓누른 정치적 억압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갇혀버리고 절망적 혹은 도피적 냉소적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의 무기력, 무능력을 대변한다. 그 패배적인 힘은 사회체제의 분위기가지만, 영화속에선 은유적으로 남성, 여성의 패러다임으로 대체, 중첩시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결국 여성을 억누르려던 강압적인 힘은 스스로 무력해지며 대신 여성의 힘이 분출하는 것이다. 두 남자는 도피 혹은 죽음의 방식에 대해 여주인공은 그들이 자신의 90년대식 삶에 동반자가 될 수 없음을 관객들에게 특히 여성관객들에게 시사하고 있다. 상민이 애달픈 장면과 시대의 고통, 혼란을 보여주는 시각적 교차 편집, 규환의 자살 장면은 바로 그

패배적 힘의 소멸과 새로운 여성적 힘의 생산을 단적으로 드러낸 압권이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남자의 죽음과 더불어 영화 매카니즘의 죽음마저 선언하고 있는 감독의 예리한 시각이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표현이다. 필름이 불태워지고 땅에 파묻혀도 우린 여전히 영상의 기억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성찰을 보여주는 감독의 화두는 대중영화속에선 신선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 영화적 삶은 이상적이지 않은가? 이땅의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또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여성들에게 다분히 계도적이다. 계도적인 영화는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오랜만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주는 한국영화를 만났다. 남성·여성들은 서로 토론해야 할 것이다.

문학단신

새 책 소개

소년의 해방과 그 이후의 동유럽



△소년의 해방과 그 이후의 동유럽...사회주의 중추국 소련이 무너지고 연이어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몰락함에 따라 사회주의를 향한 인류의 시도는 실패라 규정됐다. 이 책은 소련 해체 과정의 저변에 작용한 사회적 동력을 분석하고 그 이후 동유럽이 처해있는 위기를 해부한 역사 분석서이다. 토니 클리프의 소련 국가자본주의, 크리스 하먼의 동유럽에서의 계급 투쟁,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방법들을 이용했다.

도서출판 갈무리, 크리스 하먼, 마르크 헤인즈 지음, 7천원

△능인화 에세이 사람들 사이에 부처가 있다...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2장에서는 사람들의 다채로운 삶, 3장·4장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고 자기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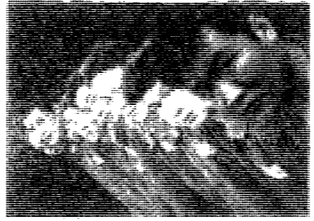
을 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석용산선생을 가까이서 수행해온 능인화보살의 에세이집이다.

도서출판 고려원, 능인화 지음, 6천원

공연안내

△행가동...현대사회의 왜곡된 욕망과 모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은, 교도소내의 또다른 사회를 통해 바깥세계의 허위와 거짓을 찾는 극단 민예극장의 창단 22주년 기념공연이다. 이진수의 원작을 각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3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공연. 성좌소극장, 문의 744-0686



△국립극단, 오늘의 연극 시리즈 1...남성의 자기 우월적인 가치추구와 성과 재생명의 탄생을 통해 겪는 여성의 육체와 의식 변모과정을 그린 '푸른 무덤의 숲', 담 파싸음과 허망한 정념으로 몰락해가는 한 양반가를 배경으로 한 '불',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건립되는 변혁의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민초들의 삶을 보여주는 '귀로등을 공연한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이 현승 감독은 첫 작품 '그대'의 불투명에서 대중 소비산업사회의 물질적 욕망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극도로 소외된 현대인(특별히 서울인)의 불감증적인 사물의 방정식을 보여주었다. 그 영화가 일정정도 성공한 반면 가장 빈약하게 드러냈던 점은 두 남자의 삶을 그리는데 있어서, 특히 여성의 삶에 있어 감독의 시각이 얼마나 진솔하고 정직한가하는 재현의 문제가 철저히 못했다는 점이다.

두번째 작품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는 거의 같은 주제를 되풀이하면서도 바로 그 취약점을 아주 의도적으로 보완하여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보여준다. 그런 의도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영화를 끌어가는 이야기흐름을 구축했고, 결과적으로 여성이 보기에 그럴듯한 주제, 즉 90년대 현실을 품으

메이리

교육비리

△교육이란 학문을 가르치는 교(敎)와 성정(性情)을 양육하는 육(育)으로 이뤄져있다. 그 지식을 가르치는 면도 중요하지만 인격도야의 면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진행중인 의정부시 소재 영석고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특별감사는 교육의 장인 학교의 비리여부를 가린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인 교사 월급차액, 잡역종원, 비인격적인 연사등의 주범이 바로 본교 재단 이사이자 여학사회 회장인 인쇄광고장이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어제(14일) 의정부 시청에서 있었던 영석고 교사들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인쇄광고장은 94년도 1년분 시간의 수당을 교사인당 15만원씩 착복했고 보충수업비를 1천1백만원가량 부당징정했으며 대부분 교사가 규정시간보다 45시간

더 수업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또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던 교사에게는 고의적으로 학습지도 안을 결재해 주지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하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영석고 교사들의 분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교사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정도의 언어폭력을 교장으로 부터 매일 당했다고 한다. '네놈들', '○○○○'등의 반말 및 욕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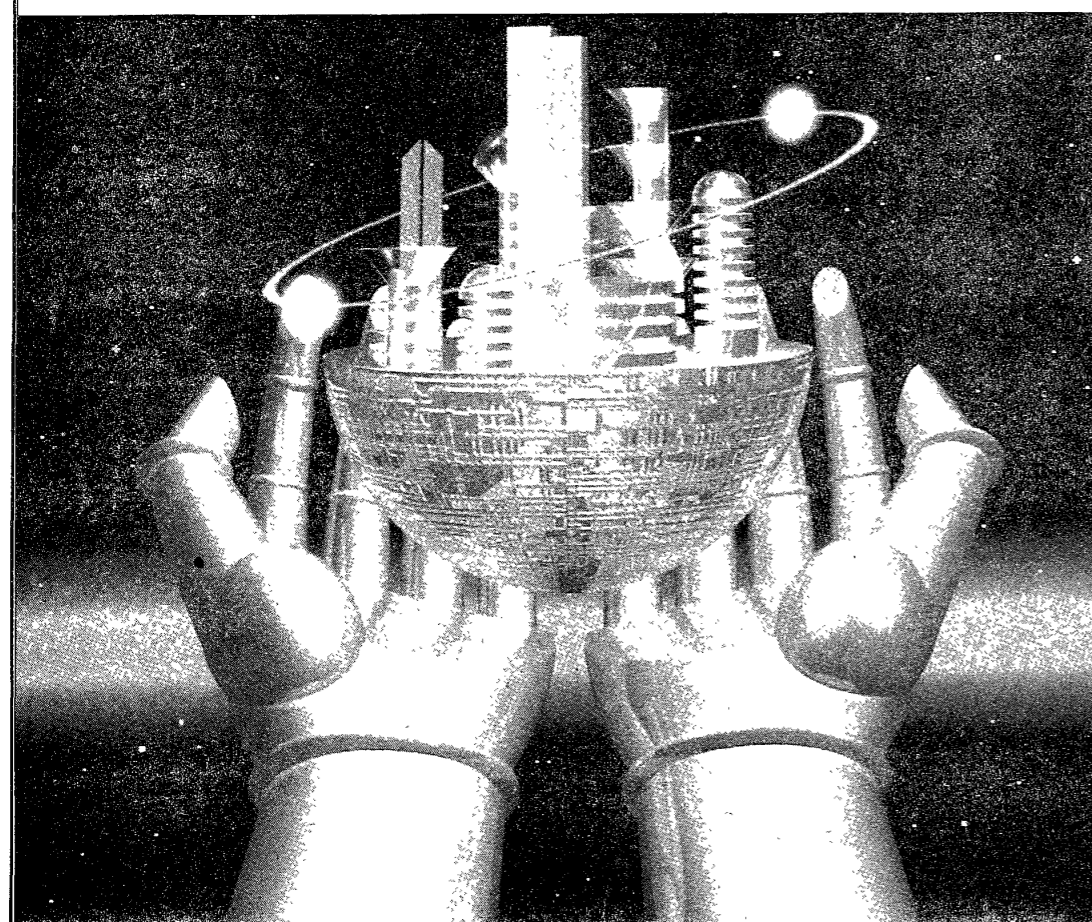
보편화되어 쓰여졌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사가 운전기사의 노릇까지 대신하고 학교내외부 폐인처럼 불쌍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불교연수생인 체단안사에 가서 풀땀, 나무자르기, 농약치기등의 작업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행위들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어졌다. 등록금을 의무금으로 부르는 납부상황을 성직에 반영하기도 하고 학생중의 미발급으로 여러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영석고 현직교사 33명중 28명의 서명으로 탄원서가 제출됐다. 28명중에는 근무한지 12월만 교사도 있고 본교 출신 동문교사도 14명이다. 이들은 안교장이 같은 동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이 바로서야 한다는 진리가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 (소)



서승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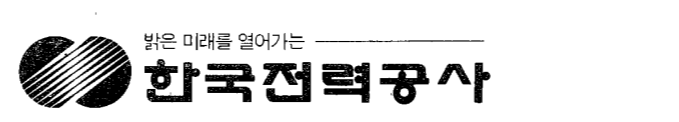
개강 파티 신인생 환영회 복학생 환영회

21세기 에너지-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꿈, 희망, 미래..... 첨단 전력기술로 열어갑니다.

꿈과 희망의 21세기- 미래는 첨단기술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기술연구원에서는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차세대 석탄응용기술, 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 미래의 대체에너지 및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꿈과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전력은 미래를 앞당기는 첨단전력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전력사업을 선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

窮理力行

『공리명명』-사회의 이치를 연구하여 후천적 지식을 명철히 하거나 공력에 도달함을 의미하며 '연구명명' 또는 '명철' 또는 '명철'을 뜻하는 한자어이다.